

# 과기연구주간소식



7호  
2024. 7. 8.(월)

발행\_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발행인\_최연택 위원장 홈페이지 [www.kupst.org](http://www.kupst.org) E-mail: mail@kupst.org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지부 단체협약 체결 2024년도 임금협약 상견례도 진행



지난 7월 4일(목) 우리 노동조합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단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지부는 2023년부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시작해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거쳐 갱신을 마무리했다.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장기근속 안식휴가 신설 △자녀수당 지급 △정년퇴직 전 사회적응 휴가 신설 등 복지와 근로조건 향상에 대해 합의했다.

# 이운복 동지 퇴임식 행사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에서 진행



<이운복 동지 퇴임식에 함께 한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동지들>

지난 7월 3일 17시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에서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 약 30명이 모여 이운복 조합원의 퇴임식을 진행했다.

1989년 한국화학연구소 노동조합 창립부터 함께한 이운복 동지는 1994년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총무국장으로 활동했으며, 한국화학연구원지부 지부장,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2대 3대 위원장, 9대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한 과학기술 노동운동의 산증인이다.

작년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맞서, 과기계 주요 단체들 연대와 국회 천막 농성을 이끄는 등 연구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해 노력하였다. 마지막까지 노동조합에 헌신하여 후배들의 귀감이 되었다.

# 7월 주요 일정

16일 중집-중앙위원 연석회의, 25일 대의원대회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 공지사항

[7월 주요 일정]

7월 16일(화) 14:00  
제3차 중앙위원회 (장소 : 대전, 추후 공지)

7월 25일(목) 14:00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 (장소 : 대전, 추후 공지)

<7월 주요 일정>

우리 노동조합은 7월 16일 제3차 중앙위원회를 중앙 집행위원-중앙위원 연석회의로 개최하기로 했다.  
우리 노조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는 7월 25일 대전권에서 개최한다.

중앙위원회와 정기대의원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임원-사무처 수련회를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전북 부안에 위치한 전북테크노파크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1박 2일로 진행한다.



## 행사와 집회



세종TP지부 임금협약 상견례(7.3.)



강릉과학산업진흥원지부 교육(7.5.)

## 노조 인사 발령

###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 인사 발령 공고

노동조합 규약 제29조, 제34조, 제47조, 제6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인사 발령합니다.

성명	인사발령 사항	비고
이 창 재	과 학 기 술 본 부 장 *	한 국 전 기 연 구 원 지 부 장
한 수 만	테 크 노 파 크 본 부 장 *	수 석 부 위 원 장, 광 주 TP 지 부 장
박 찬 훈	수 도 권 본 부 장 *	한 국 건 설 기 술 연 구 원 지 부 장
김 태 훈	영 남 권 본 부 장 *	부 산 테 크 노 파 크 지 부 장
윤 영 준	호 남 권 본 부 장 *	전 북 테 크 노 파 크 지 부 장
이 광 오	정 책 위 원 장 *	사 무 처
이 상 근	정 책 국 장	한 국 전 자 통 신 연 구 원 지 부 장
이 태 경	정 책 국 장	대 전 테 크 노 파 크 지 부 장
남 종 석	정 책 국 장	경 남 연 구 원 지 부 장
서 성 원	교 육 선 전 위 원 장 *	카 이 스톨 유 니 온 지 부 장
김 종 완	교 육 국 장	안 전 성 평 가 연 구 소 지 부 부 지 부 장
김 성 우	선 전 홍 보 국 장	한 국 핵 융 합 에 너 지 연 구 원 지 부 장
이 경 진	총 무 기 획 실 장	사 무 처
김 종 유	조 직 국 장	사 무 처
오 수 환	교 육 국 장	사 무 처

\*\* 본부장(특성, 지역), 상설위원장(정책, 선홍)은 서리 발령이며, 중앙위원회  
의결 후 정식 임명합니다.

2024년 7월 4일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위원장

Korean Union of Public Science and Technology workers



## [노동자의 시선] 야구로 알아보는 노동조합(2)

오수환/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교육국장



<MLB 선수를 노예 자격에서 해방시킨 마빈 밀러(좌측)와 당시 선수 대표인 세인트루이스 조 토레>

지난 소식지 4호에서 MLB(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선수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어떻게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였는지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강력한 MLB 선수노조가 성장해 온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917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마빈 줄리안 밀러(Marvin Julian Miller)는 부모님이 모두 노동자 출신이었고, 어릴 때부터 노동운동의 중요성을 몸으로 느끼며 자랐다. 국가전쟁산업노동자협회를 시작으로 노동운동계에 뛰어든 밀러는 국제기술자연합, 전미자동차노조를 거쳐 1950년 미국 3대 노조 중 하나였던 전미철강노조 고문으로 일하게 된다. 최고의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던 밀러가 1966년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선수들은 노조위원장 밀러를 노조위원장 후보로 추천했다.

선수들은 노조 자문 변호사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나는 리처드 닉슨 전 부통령을 추천했지만, 마빈 밀러는 메이저리그 구단주들과 친했던 보수적인 우파 정치인 닉슨에 대해 “노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닉슨과 함께 일할 수 없다”며 거절하고, 노동운동 전문 변호사 딕 모스를 영입하며 MLB 선수노조 위원장에 취임했다.

선수노조 위원장에 취임하고 제일 먼저 부딪혀야 했던 벽은 구단주가 아니었다. 야구선수는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 무슨 노조가 필요하냐는 비아냥이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야구 선수들이 자신들을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노동자라는 말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마빈 밀러는 선수들을 찾아다니며, 선수들도 노동계약을 맺으며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하나의 전문 직업이라는 것을 설득하였다. 밀러는 선수들도 노동자이며 그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의식을 일깨우면서 선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MLB 선수노조가 노동조합의 역할을 제대로 한 배경에는 이처럼 야구선수들도 노동자라는 점과 노동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노력한 마빈 밀러와 MLB 선수노조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음 시간에는 마빈 밀러와 선수노조가 어떠한 활동으로 MLB를 혁신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 주요 언론보도

[과기연구노조, ‘최연택-한수만-한상진’ 초대 임원 선출](#) - 참여와 혁신

[KOMERI, 노사 동반 성장 위한 단체협약 체결](#) - 국제뉴스

## 주요 일정

- 7/8(월) 14:00 과학기술본부 운영위원회  
16:00 서울tp지부 면담
- 7/9(화) 14:00 임원-사무처 워크숍(~10일)
- 7/12(금) 10:00 제주tp지부 단체협약 실무교섭  
13:30 재료연지부 지부협약 상견례